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일상생활 참여가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Fathers' Interest and Involvement in their Child's Education as
related to Demographic Variables,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Participation in the Daily Life of their Children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최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 협동과정

교수 박성연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점임교수 전춘애***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

Master : Choi, Jee-Su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

Professor : Park, Seong-Yeon

Master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Adjunct Professor : Jun, Chun-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explore fathers' interest and involvement concerning their child's education as related to demographic variables of family,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participation in the daily life of their children.

A total of 220 fathers of children in elementary to high school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fathers' interest and involvement in their child's education was relatively high. 2) Fathers' interest and involvement in their child's educa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father's educational level and socioeconomic status, but not to the child's gender and age. The better a child's school achievement was, the higher the father's interest and involvement in their child's education was. 3) Fathers' affectionate parenting behavior and participation in the daily life of their children affected the fathers' interest and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 importance of fathers' interest and participation concerning their child's education was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fathers' interest in their child's education),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fa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s education), 아버지의 양육행동(fathers' parenting behavior),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participation in the daily life of their children)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주저자 : 최지선 (E-mail : icesun1115@gmail.com)

*** 교신저자 : 전춘애 (E-mail : eundalife@naver.com)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고, 현재에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있어 주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중 65.4%로 미혼 여성의 취업률 52.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다(통계청, 2006).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꾸준히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양쪽 부모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자녀가 얻게 되는 이점은 자녀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발달을 이끄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ontz, 1998). 즉,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자녀의 인지를 높여주고, 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을 도와주는 등 자녀의 여러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임병금 등, 2004; 최경순, 1992), 자녀양육 참여는 아버지 자신과 어머니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역할의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심리적 복지감이 촉진되었으며(조원지·한경혜, 2001), 자녀양육 참여는 아버지 자신의 유능감에도 기여하여, 자녀양육에 참여를 많이 하는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가 좋았으며, 스스로를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하여 자신감과 만족도가 증가하였다(Barnett & Baruch, 1985). 또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직장으로서의 복귀를 도울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자부심이 증가하였으며(Parke, 2005), 아버지가 양육 참여를 많이 할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자율적으로 대하고 성취 압력을 덜 주는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재홍·김태성, 2002).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 더욱 강조되어 자녀양육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하는 ‘바짓바람’, ‘프렌디’, ‘슈퍼대디’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다. ‘바짓바람’이란 예전에 어머니들이 열성적으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것을 ‘치맛바람’이란 용어로 설명했던 것에 빗대어 열성적인 아버지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를 설명하는 말이다(한경닷컴 2007.8.3; 쿠키뉴스 2007.11.23). ‘프렌디(friendly)’란 친구(friend)와 아빠(daddy)의 합성어(조선일보 2009.4.6)로서 다정하고 친구 같은 모습의 아버지라는 최근의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반영하는 신조어이다. ‘슈퍼대디(Super Daddy)’란 집안일은 물론 아이들의 양육,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를 말한다. 기존의 가족부양을 중심으로만 규정되던 아버지의 역할이 가사는 물론 자녀의 학습 도우미, 친구 등을 자처하는 영역까지 확산되었다.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애정을 느끼고 자존감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감성적인 어머니의 성향에 이성적인 아버지의 성향이 조화를 이루어 교육현장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노컷뉴스 2006.5.23)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신문이나 뉴스 등의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 참여에 대한 기사를 통해 현재의 아버지들이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parental involvement)에 대해 Lamb 등(1987)은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정도와 자녀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김희화(2005b)는 Lamb 등이 제시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세 가지 요소(상호작용, 접근성, 책임감) 중 아버지와 자녀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engagement/interaction) 개념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를 여가생활, 정보제공, 훈육, 학업지원, 전통전수, 물질지원, 일상생활의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즉, 자녀양육은 자녀와의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자녀교육은 김희화의 척도 중 정보제공(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식, 역사, 경제지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해 상호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과 학업지원(자녀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지도내용)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의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 자녀의 학업과 연관되는 자녀교육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미국, 일본, 중국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기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한 Steven-son 등(1986)에 의하면, 미국의 어머니들은 노력과 능력을 거의 동등하게 평가한 반면 일본과 중국 어머니들은 능력보다 노력에 훨씬 더 큰 중요성을 두었다. 이에 대해 성취정도가 주로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보는 문화권에서는 부모 자신이 자녀의 발달과 성취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자녀의 성취를 조장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것을 해주어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박성연 등, 1996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여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많은 것을 부모들이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에서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아버지들이 자녀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실제 참여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도 아버지들의 일차적 의무는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이상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도 이상적인 아버지상의 1위는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책임지는 아버지로 나타났다(이세용·양현정, 2003).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본인은 물론이고, 어머니와 자녀들에게도 공통된 응답으로 여전히 아버지들에게 전통적인 도구적 역할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버지들의 저조한 육아휴직 신청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육아휴직은 2004년 71명에서 2008년 2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신청자 비율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과이낸셜 뉴스, 2009.6.24). 따라서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필요성과 관심이 실제 교육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Palkovitz(2001)는 아버지 참여에 대한 기존의 개념화가 아버지의 행동적 개입 즉 실제 양육참여에만 초점을 두었고,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실제 상호작용의 양을 나타내는 참여 뿐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대해 가지는 관심 역시 아버지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 즉, 관심의 공유, 정서적 지원, 애정, 모니터링, 사고과정 등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 역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서 중요함을 시사한다(신용주, 2008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영역을 관심과 참여로 구분하여, 현재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김정원·김유정, 2007),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통해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예측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참여는 높아지고(Marsiglio, 1991; 강란혜, 2000) 상호작용이 활발했으며,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버지의 참여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세용·양현정, 2003). 그 이유는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아버지와 자녀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학년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나 자녀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녀의 성별도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Greenberger와 O'Neil(1991)은 아버지가 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아들의 학업이나 운동, 대인관계 기술을 위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딸을 가진 아버지의 경우에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다 더 따뜻하게 대하는 반면, 딸에게는 다소 엄격하게 대함으로써(이세용·양현정, 2003, 재인용)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다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Kindlon(2006)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남, 녀 구분 없이 동등하게 관심을 주고 교육을 지원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성격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초등학교 5, 6학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았으며 이는 특히 중류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아버지의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미경, 1990).

아버지의 연령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젊은 아버지일수록 전통적 성역할에 덜 구애되어 자녀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젊은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이정화, 1995). 반면 아버지들의 비전통적 사고방식과 관계없이 아버지들이 실제 직장생활에 바쁘게 쫓기기 때문에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자녀양육 참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양득주, 1988; 양미경, 1996 재인용) 보고되어 아버지의 연령에 있어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양육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과 정적 상관이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았다(Marsiglio, 1991, Volling & Belsky, 1991).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정보제공 및 학업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김희화, 2005a)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버지 역할의 실제 수행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전효숙, 1990; 이화진, 1995).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쳐 어른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필요로 할 때 자녀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한결같이 편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는지를 측정 한 심리적 접근성 정도는 아버지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심리적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이세용·양현정, 2003), 경제수준과 참여도간의 정적 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도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 즉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자녀양육 참여가 높았고, 양육행동이 거부적일수록 자녀양육 참여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신, 1999).

한편 아버지의 자녀교육 및 양육참여에서 한 가지 활동에 적극적인 아버지는 다른 활동에서도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아져 자녀와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아버지일수록 자녀의 학습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자신의 친구, 동료와 자녀교육에 대해 대화를 자주 나누는 등 관심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세용, 1997). 또한 아버지와 자녀가 여가생활을 함께 할수록, 아버지가 자녀가 알아야 할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자녀의 학업지원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학업 성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희화, 2005b),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중 여가생활과 생활지도 참여가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금혜, 2008).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가 높을수록 아버지에게 대한 자녀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았으며, 아버지와의 신뢰관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외톨이 성향,

학습태도 및 이탈행동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세용·양현정, 2003).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아버지가 자녀와의 일상생활 등 많은 영역에서 자녀와 상호교류가 많다는 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역시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가 영아기 때 양육 참여가 높았던 아버지는 이후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높은 참여를 보였다는 보고(Parke, 2005)는 아버지 참여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아기 자녀에게는 신체적 돌봄이 중요한 양육이지만 학령기·청소년기의 자녀에게는 교육이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양육에 적극적이었던 아버지는 자녀교육에도 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는 자녀의 성별, 연령, 성적, 사회경제적 지위, 아버지의 학력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녀교육만을 다루기보다는 자녀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양육참여를 다루고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가 자녀교육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정도와 자녀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라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을 감안하여 연구의 범위를 자녀교육에만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적이 객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학령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아버지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자녀의 성별, 연령, 성적, 사회경제적 지위,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과 참여로 양성적인 자녀양육에 기여하고, 그 결과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 대상의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자녀의 성별, 연령, 성적, 사회경제적 지위, 아버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자녀의 성별, 연령, 성적, 사회경제적 지위, 아버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아버지 220명이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선정한 이유는 학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학업성취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아버지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학생들을 통한 설문지 배부를 지양하고 연구대상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을 연구자가 방문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지인들을 통해 각 직장에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본 연구대상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3.22세로 연령분포는 40~44세가 32.2%, 35~39세가 31.8%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18.2%)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이 4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16.0%), 사무직(15.0%), 전문직(11.7%)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5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회사원(20.4%), 자영업(7.5%), 서비스직(6.5%)순이었다. 아버지가 지각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49.5%가 중류에 속한다고 지각하였고, 23.6%가 중하로, 20.9%가 중상으로 지각하였다. 아버지의 근무시간은 하루 8~9시간미만이 41.0%로 가장 많았고, 9~10시간미만이 30%였다.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자녀의 평균연령은 12.95세로, 남아가 49.1%, 여아가 50.9%였고, 자녀수는 두 자녀가 67.9%로 가장 많았고, 한 자녀가 21.6%였다.

자녀의 연령을 학제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32.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5.9%, 초등학교 고학년은 22.7%, 중학교는 19.1%였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성적을 중상위권(36.1%)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위권(29.3%), 중위권(25.9%)순서로 지각하였다(<표 1> 참조).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자녀수, 성별, 연령, 성적, 아버지의 연령,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버지 직업, 학력, 직장근무시간 등), 아버지의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20)

변 인	빈도(%)	변 인	빈도(%)
자녀 성별*		아버지 학력*	
남 아	104(49.1)	대학원 졸업	33(15.0)
여 아	108(50.9)	대학교 졸업	115(52.3)
자녀 연령		전문대학 졸업	30(13.6)
초등학교 저학년	71(32.3)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18.2)
초등학교 고학년	50(22.7)	아버지 연령*	
중학교	42(19.1)	35~39세	68(31.8)
고등학교	57(25.9)	40~44세	69(32.2)
자녀 성적*		45~49세	51(23.8)
상위권	60(29.3)	50세 이상	26(12.1)
중상위권	74(36.1)	사회경제적 지위	
중위권	53(25.9)	상	3(1.4)
중하위권	14(6.8)	중상	46(20.9)
하위권	4(2.0)	중	109(49.5)
아버지 직업*		중하	52(23.6)
노동자	1(0.5)	하	10(4.5)
서비스직	9(4.2)	아버지 근무 시간*	
자영업	4(16.0)	8시간 미만	13(6.0)
사무직	32(15.0)	8~9시간 미만	89(41.0)
회사원	90(42.3)	9~10시간 미만	65(30.0)
전문직	25(11.7)	10~11시간 미만	25(11.5)
기업주	17(8.0)	11~12시간 미만	14(6.5)
기 타	5(2.3)	12시간 이상	11(5.1)

*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양육행동, 일상생활 참여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

본 연구에서는 김희화(2005b)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김희화의 척도는 7가지 요인 5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가지 요인은 ‘여가생활(11개)’, ‘정보제공(7개)’, ‘훈육(8개)’, ‘학업지원(9개)’, ‘전통전수(7개)’, ‘물적지원(6개)’, ‘일상생활(6개)’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자녀 교육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제공’과 ‘학업지원’ 내용에 노컷뉴스(2006.5.23)와 한국경제신문(2008.6.29)의 내용을 추가한 후 아동·가족 전공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관심’은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대해 가지는 관심으로서 자녀와의 실제적 상호작용의 여부는 배제하고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대해 정서적, 인지적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심을 가진다.’, ‘나는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나는 아이가 요즘 무슨 책을 읽는지 알고 있다.’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모두 14문항이며 신뢰도는 $\alpha=.88$ 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는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실제로 참여하여 자녀와 상호 작용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가 공부계획 짜는 것을 도와주거나 확인하는 편이다.’, ‘나는 아이를 위해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준다.’, ‘나는 아이의 학교 행사에 참여한다.’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모두 8문항이며 신뢰도는 $\alpha=.81$ 로 높게 나타났다.

본 척도의 응답 방식은 Likert식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버지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박성연·이숙(1990), 이미정(1998)의 연구에 기초하여 임희수(2001)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임희수(200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행동을 측정하고 그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인 아버지에게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가족 전공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양육행동을 ‘합리적 지도’, ‘애정’, ‘과보호’, ‘일관성 있는 규제’, ‘지시/통제’, ‘거부/적대’의 6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합리적 지도’는 아동을 도와주거나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왜 안 되고 왜 용납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행동을 말한다(신뢰도 $\alpha=.89$). ‘애정’은 아동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아동 중심적이면서 아동을 존중, 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한다(신뢰도 $\alpha=.88$). ‘과보호’는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되도록 막고 의존성을 보장해 주는 행동으로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행동을 말한다(신뢰도 $\alpha=.76$). ‘일관성 있는 규제’는 매일의 일과를 정해 놓고 있으며 아동에게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고 따르게 하는데 있어 자신이 있고 일관적이어서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신뢰도 $\alpha=.69$). ‘지시/통제’는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제한하고 간섭하며 지시하는 행동이다(신뢰도 $\alpha=.83$). ‘거부/적대’는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불만이나 비난을 표시하며 귀찮아하는 태도를 말한다(신뢰도 $\alpha=.81$).

본 척도의 응답 방식은 Likert식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범주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녀와의 일상생활에 대한 참여

본 연구에서는 김희화(2005b)가 개발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에서 제시된 7가지 요인 중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가생활’, ‘일상생활’ 내용에, 박성연(2006), 서울신문(2006.5.25)의 내용을 추가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아이와 운동(배드민턴, 축구, 야구 등)을 한다.’, ‘나는 아이와 놀이공원이거나 교외로 나간다.’, ‘나는 아이와 문자나 이메일을 주고 받는다.’ 등 아버지가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를 통해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모두 19문항이며 신뢰도는 $\alpha=.87$ 로 높게 나타났다.

본 척도의 응답 방식은 Likert식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하지 않는다)부터 5점(자주 하는 편이다)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일상생활에 참여가 많음을 의미한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9년 4월에 설문대상에 해당하는 아버지 3명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이해하기 어렵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의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아동·가족 전공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조사는 2009년 4~5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직장인들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었다.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29(71.56%)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자녀 연령이 대상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220부를 최종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rogram 1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에 의해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에 있어 변인들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후검증을 위해서는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이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초분석 : 관련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

본 연구의 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의 전반적인

<표 2> 관련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

(N=220)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합리적 지도	3.80	.57	1.18~5.00
애 정	3.69	.58	1.44~5.00
과보호	2.62	.53	1.11~4.11
일관성 있는 규제	3.37	.71	1.00~5.00
지시/통제	2.98	.66	1.00~4.83
거부/적대	2.26	.61	1.00~4.00
일상생활 참여	3.20	.57	1.37~4.58
자녀교육 관심	3.75	.55	1.36~5.00
자녀교육 참여	3.24	.59	1.13~5.00

경향을 살펴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인 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애정, 일관성 있는 규제, 지시/통제, 과보호, 거부/적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생활 참여의 평균은 3.20,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의 평균은 3.75,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의 평균은 3.24점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의 차이¹⁾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t-검증 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자녀성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적이 따른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11.77, p<.001),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인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의 평균은 3.99이었고, 중상위권인 경우에는 평균이 3.80이었으며, 중위권인 경우에는 평균이 3.62이었으며, 자녀의 성적이 중하~하위권인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의 평균은 3.25로 나타났다. 이를 Duncan 검사를 통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인 집단, 중위권인 집단과 중하~하위권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성적인 중하~하위권인 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스스로 지각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08, p<.0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중상’으로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3.92이었고, ‘중’으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평균이 3.75이었으며, ‘중하~하’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평균이 3.63으로 나타났다. 이를 Duncan 검사를 통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중상’인 집단과 ‘중하~하’인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41, p<.01).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하인 경우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의 평균은 3.57인데 비해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의 평균은 3.84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학력이 높은 경우에 낮은 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N=220)

변 인	비교집단(N)	평 균	표준편차	t / F
자녀의 성별	남아(104)	3.76	.51	.20
	여아(108)	3.75	.57	
자녀의 연령	초등저학년(71)	3.69	.54	1.17
	초등고학년(50)	3.86	.58	
	중학생(42)	3.80	.50	
	고등학생(57)	3.73	.56	
자녀의 성적	상위권(60)	3.99 ^c	.42	11.77 ^{***}
	중상위권(74)	3.80 ^{bc}	.50	
	중위권(53)	3.62 ^b	.52	
	중하~하위권(18)	3.25 ^a	.73	
사회경제적 지위	상~중상(49)	3.92 ^b	.50	4.08 [*]
	중(109)	3.75 ^{ab}	.51	
	중하~하(62)	3.63 ^a	.62	
아버지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148)	3.84	.53	3.41 ^{**}
	전문대 졸업 이하(70)	3.57	.55	

*p<.05, **p<.01, ***p<.001

1) 기초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4집단으로, 자녀 성적은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하위권의 4집단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의 자기보고에 근거하여 상~상중, 중, 중하~하의 3집단으로, 아버지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하와 대학 졸업 이상의 2집단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

(N=220)

변 인	비교집단(N)	평 균	표준편차	t / F
자녀의 성별	남아(104)	3.26	.60	.09
	여아(108)	3.25	.58	
자녀의 연령	초등저학년(71)	3.29	.59	1.44
	초등고학년(50)	3.32	.60	
	중학생(42)	3.22	.66	
	고등학생(57)	3.11	.52	
자녀의 성적	상위권(60)	3.37 ^b	.48	5.44**
	중상위권(74)	3.31 ^b	.62	
	중위권(53)	3.11 ^b	.57	
	중하~하위권(18)	2.82 ^a	.67	
사회경제적 지위	상~중상(49)	3.40 ^b	.59	3.84*
	중(109)	3.25 ^{ab}	.61	
	중하~하(62)	3.09 ^a	.55	
아버지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148)	3.31	.61	2.81*
	전문대 졸업 이하(70)	3.08	.53	

* $p < .05$, ** $p < .01$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의 차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의 차이를 t-검증 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자녀성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적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5.44$, $p < .01$),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인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의 평균은 3.37이었고, 중상위권인 경우에는 평균이 3.31이었으며, 중위권인 경우에는 평균이 3.11이었으며, 자녀의 성적이 중하~하위권인 경우에는 평균이 2.82로 나타났다. 이를 Duncan 검사를 통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인 집단과 중하~하위권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성적이 중하~하위권인 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스스로 지각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84$, $p < .0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중상'으로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는 3.40이었고, '중'으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평균이 3.25이었으며, '중하~하'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평균이 3.09로 나타났다. 이를 Duncan 검사를 통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중상'인 집단과 '중하~하'인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1$, $p < .05$).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하인 경우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의 평균은 3.08인데 비해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의 평균은 3.31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학력이 높은 경우에 학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일상생활 참여,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인들(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일상생활 참여)과 종속변인(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간의 상관계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5>에서 제시되었듯이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은 자녀의 성적($r=.39$, $p < .001$), 아버지의 학력($r=.19$, $p < .01$),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r=.21$, $p < .01$), 합리적 지도($r=.67$, $p < .001$), 애정($r=.65$, $p < .001$), 일관성 있는 규제($r=.38$, $p < .001$) 그리고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r=.50$, $p < .001$)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아버지의 거부/적대($r=-.27$, $p < .001$)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거부/적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아버지일수록 자녀교육에의 관심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는 자녀의 성적($r=.27$, $p < .001$),

아버지 학력($r=.14, p<.05$), 사회경제적 수준($r=.21, p<.01$), 합리적 지도($r=.52, p<.001$), 애정($r=.61, p<.001$), 과보호($r=.18, p<.01$), 일관성 있는 규제($r=.39, p<.001$), 지시/통제($r=.14, p<.05$), 일상생활 참여($r=.50, p<.001$) 그리고 자녀교육에의 관심($r=.72, p<.0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거부/적대($r=-.17, p<.05$)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5.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도가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과 참여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 공선성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 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다. 공차한계값이 1에 접근하면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분산팽창요인(VIF)이 1에 접근하면 변수 간에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그러나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양병화,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값이 .32~.98이며,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1~3.17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계적 회귀분석의 해석이 가능하였다.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Model 1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자녀의 성적,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버지의 학력을, Model 2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6가지 영역을, Model 3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 때 아버지의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Model 1에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르고, Model 2에 투입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라 다르므로 이들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된 조건에서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 변인의 자녀교육 관심과 참여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에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표 6>에서 제시되었듯이, Model 1에서는 자녀의 성적($\beta=.35,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성적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이로 인한 설명력은 15.6%였다. Model 2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애정($\beta=.43,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beta=.32, p<.001$),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지시/통제($\beta=.22, p<.01$), 자녀의 성적($\beta=.17, p<.01$),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beta=.12, p<.05$)순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합리적인 지도를 많이 할수록, 지시/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이로 인한 추가설명력은 40.8%로 Model 2의 전체 설명력은 56.4%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애정($\beta=.37,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합리적 지도($\beta=.32, p<.001$), 지시/통제($\beta=.22, p<.01$), 자녀의 성적($\beta=.17, p<.01$),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beta=.15, p<.01$),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beta=.12, p<.05$)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합리적인 지도를 많이 할수록, 지시/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를 많이 할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추가설명력은 1.1%로 Model 3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57.5%였다.

2)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에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표 7>에 제시되었듯이, Model 1에서는 자녀의 성적($\beta=.23,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성적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았으며 이로 인한 설명력은 7.7%였다.

Model 2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애정($\beta=.53,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beta=.17, p<.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았으며, 이로 인한 추가설명력은 34.2%로 Model 2의 전체 설명력은 41.9%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애정($\beta=.44,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beta=.22, p<.01$),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beta=.17, p<.05$)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를 많이 할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추가설명력은 2.7%로 Model 3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44.6%였다.

<표 5 >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일상생활 참여,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 간의 상관관계 (N=2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자녀성별 ^a	-															
2. 자녀연령	-.044	-														
3. 자녀성적	-.060	-.046	-													
4. 아버지연령	-.128	.689 ***	-.064	-												
5. 아버지학력	-.092	-.259 ***	.275 ***	-.219 **	-											
6. 근무시간	-.061	-.073	-.095	-.137 *	-.085	-										
7. 사회경제적지위	-.154 *	.142 *	.259 ***	.221 **	.229 **	-.064	-									
8. 합리적지도	-.004	-.131	.295 ***	-.055	.167 *	.040	.064	-								
9. 애 정	.068	-.189 **	.261 ***	-.139 *	.175 *	.024	.097	.743 ***	-							
10. 과보호	.050	-.200 **	.011	-.124	-.040	-.054	-.146 *	.008	.048	-						
11. 일관성있는 규제	.025	-.136 *	.191 **	-.176 *	.127	-.122	-.065	.500 ***	.535 ***	.313 ***	-					
12. 지시/통제	-.044	-.152 *	.003	-.087	.004	-.057	-.079	.068	-.032	.696 ***	.334 ***	-				
13. 거부/적대	-.054	-.138 *	-.081	-.093	-.002	-.056	-.120	-.406 ***	-.450 ***	.535 ***	-.018	.622 ***	-			
14. 일상생활참여	-.027	-.220 **	.232 **	-.196 **	.324 ***	-.088	.070	.441 ***	.541 ***	.111	.451 ***	.086	-.146 *	-		
15. 관 심	-.014	.003	.390 ***	.051	.191 **	-.077	.207 **	.668 ***	.654 ***	.048	.383 ***	.121	-.265 ***	.495 ***	-	
16. 참 여	-.006	-.094	.271 ***	-.084	.137 *	-.097	.204 **	.515 ***	.611 ***	.175 **	.389 ***	.143 *	-.171 *	.503 ***	.716 ***	-
평 균	-	12.95	2.86	43.22	3.64	-	2.91	3.80	3.69	2.62	3.37	2.98	2.26	3.20	3.75	3.24
표준편차	-	1.19	.94	4.96	.96	-	.82	.57	.58	.53	.71	.66	.61	.57	.55	.59

*p<.05, **p<.01, ***p<.001

a) 성별 : 남아를 기준으로 남아는 0, 여아는 1로 가변수 처리하였음.

<표 6>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행동, 일상생활 참여의 위계적 회귀분석 (N=220)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녀성적	.19	.35***	.10	.17**	.09	.17**
아버지학력	.03	.05	-.01	-.02	-.03	-.05*
SES	.07	.11	.08	.12*	.08	.12
양육행동						
합리적지도			.31	.32***	.31	.32***
애정			.40	.43***	.35	.37***
과보호			-.09	-.09	-.09	-.09
일관성 있는 규제			-.05	-.06	-.07	-.08
지시/통제			.18	.22**	.18	.22**
거부/적대			.00	.00	-.00	-.00
일상생활참여					.14	.15**
F(df)	13.42***(3,202)		30.00***(9,202)		28.34***(10,202)	
R ²	.156		.564		.575	
ΔR ²			.408		.011	

*p<.05, **p<.01, ***p<.001

<표 7>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행동, 일상생활 참여의 위계적 회귀분석 (N=220)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녀성적	.14	.23**	.04	.07	.04	.07
아버지학력	.01	.01	-.03	-.05	-.06	-.10
SES	.10	.14	.12	.17**	.12	.17*
양육행동						
합리적지도			.11	.10	.11	.10
애정			.55	.53***	.46	.44***
과보호			.07	.06	.07	.06
일관성 있는 규제			.01	.01	-.03	-.03
지시/통제			.10	.11	.09	.10
거부/적대			.04	.04	.04	.04
일상생활참여					.22	.22**
F(df)	6.58***(3,202)		17.20***(9,202)		17.28***(10,202)	
R ²	.077		.419		.446	
ΔR ²			.342		.027	

*p<.05, **p<.01,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많은 것을 부모들이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한 과도한 교육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일상생활에 대한 참여가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과 참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아버지 220명을 연구대상으로 사회인

구학적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일상생활 참여,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에 관한 자료를 아버지 보고를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인 지도와 애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적대는 비교적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의 평균은 3.20,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과 참여의 평균은 3.75와 3.24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아버지들은 그들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는 일상생활 참여가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 학부모 포털 설문조사에서 64.4%의 아버지

들이 자녀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데이터뉴스, 2008.5.23)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참여보다는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그것이 실제 자녀교육 참여로 직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교육에의 관심이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는 자녀의 성별,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녀의 성적, 사회경제적 지위 및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성적이 중하~하위권인 집단에서는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가 가장 낮았다. 아버지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 비해, 그리고 아버지 학력이 높은 경우에 낮은 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았으며 이는 특히 중류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아버지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오미경(1990)의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정보제공 및 학업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희화(2005a)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혀 어른들의 지지가 필요할 때 자녀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적 접근성 정도는 아버지의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세용, 양현정, 2003)를 통해 가정의 경제수준이 자녀교육에의 관심 및 참여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연구 대상의 94%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류층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성적과 아버지의 학력($r=.28, p<.001$), 자녀의 성적과 사회경제적 지위($r=.26, p<.001$),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 ($r=.23, p<.01$)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류층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또한 자녀의 성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지원 활동, 과외 참여 비율, 과외비 지출 수준 등에서 가정배경에 따른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가정배경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과 같은 인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나 학교생활만족도와 같은 비인지적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며, 상급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류방란, 김성식(2006)의 결과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들의 자녀교육 관심과 참여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수준이 낮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과 참여를 적극 이끌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가정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교육적 지원과 경험을 학교 및

사회에서 적극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 및 그에 따른 아동들의 긍정적인 발달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는 성별에 대한 차별적인 양육행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한 박현주(2001)의 결과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자와 남자의 출발선이 똑같아지며, 남녀의 구분이 없이 동등하게 부모의 관심을 받고, 동등한 교육을 받고, 동등한 사회진출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알파걸이 등장한다는 Kindlon(2006)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연령에 있어서는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버지의 참여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이세용·양현정, 2003)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율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진다는 연구(Marsiglio, 1991)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학부모의 80-90%가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희망한다는 보고(박현주, 2001)를 감안할 때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업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와 그들 부모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긍정적 상호작용은 적고 갈등적 상호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대학입시를 겨냥한 '공부' 외의 공통 관심사가 부족하고 양육방식이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parenting)이며, 개방적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한 이여봉 등(2008)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가 학령기 및 청소년기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학업 성취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합리적인 지도를 많이 할수록, 지시/통제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를 많이 할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설명력은 57.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를 많이 할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44.6%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과 참여 모두에서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행동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일 때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박순길, 2004)와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난 중학생들의 아버지들에게서 애정적,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화순, 2003) 결과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즉,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버지일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애정적인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시/통제를 많이 하는 아버지가 자녀교육에의 관심이 높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난 중학생들의 아버지들에게서 적대적, 통제적 양육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화순, 2003)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탐색 연구에서 어머니의 경우 돌봄이든 통제이든 청소년의 생활을 간섭하는 것이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아버지는 돌봄이든 통제이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인터넷 중독 예방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춘애 등(2008)의 결과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에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 시점에서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간주되는 지시/통제가 과연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을 비롯하여 아동발달 및 부모-자녀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재검증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와의 일상생활 참여가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영아기 때 참여가 높았던 아버지는 이후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높은 참여를 보인다는 보고(Parke, 2005)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장생활에 전념하느라 이차적인 자녀양육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아버지가 자녀와 질적인 상호작용은 물론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자주 하는 것이 자녀교육에의 관심 및 참여를 더 많이 이끌고, 이는 다시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 대상의 교육과 상담에서 아버지의 일상생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아버지들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67.3%이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중하~중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94%로서 도시의 중류층 가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지도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사용하며, 거부/적대적인 양육행동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의 아버지에게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다시 말하여, 지역(도시,

농촌)과 아버지 학력,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주요한 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보다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교육 및 참여를 다루었는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고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오늘날, 자녀교육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일상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의 포괄적인 의미가 아닌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과 참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녀교육에의 행동적 개입인 참여와 자녀교육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상이한 개념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녀의 교육열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이제까지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이차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온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을 밝힌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건전한 방향으로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아버지 대상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들 가정을 위한 부모상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란혜(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김정신(1999).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 · 김유정(200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아버지 관련 연구 경향분석: 1980년 이후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25-38.
- 김희화(2005a).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아동학회지*, 26(5), 311-330.
- 김희화(2005b).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아버지의 양육참여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6(1), 107-121.
- 도금혜(2008). 아버지 관련 변인이 아동의 학교생활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1-12
- 류방관 · 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 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연 ·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3-145.
- 박성연 · 도현심 · 정승원(역)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학지사
- 박성연(2006). **아동발달**. 교문사.
- 박순길(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 성적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2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용주(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참여에 관한 문헌 고찰. **생활과학연구**, 13.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45-55.
- 양득주(198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취학 전 아동의 성특성 고정관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양병화(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p.64.
- 오미경(1990).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 수행정도가 아동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1998). 3세여아의 행동억제와 그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세용(1997). 아버지의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 595-623.
- 이세용 · 양현정(2003). **아버지의 교육참여와 청소년 발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여봉 · 이선이 · 김현주(2008).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 긍정적-갈등적 상호작용: 국가 및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127-160.
- 이화순(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학업 성적차이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진(199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와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병금 · 정연숙 · 우수경(200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생활과학연구논총**, 8(1), 53-69.
-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재홍 · 김태성(2002).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태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23-139.
- 전춘애 · 박철욱 · 이은경(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9(2), 709-726.
- 전호숙(1990). 유치원 자녀를 둔 아버지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원지 · 한경혜(2001). 직업 역할 및 아버지 역할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20.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경혜 · 이정화(1995). 남성의 직업역할과 부모기 전이로 인한 긴장감/보상감. **한국가족학회**, 7, 155-183.
- 노컷뉴스(2006.5.23). 아버지 학부모가 나서야 학교가 바로 선다
- 데이터뉴스(2008.5.23). 아버지 21%, 자녀교육에 '바짓바람'
- 서울신문(2006.5.25). 자타공인 좋은 아빠 3인의 교육법. 13면
- 조선일보(2009.4.6). [아빠의 좌충우돌 교육기] 공부 안 하는 듯 공부하는 법 없나요? 46면
- 쿠기뉴스(2007.11.23). 아이 방과 후 스케줄 폐고, 등·하교 교통정리까지... 3040 아빠들의 '바짓바람'
- 파이낸셜뉴스(2009.6.24). 공무원 육아휴직 4년 새 3.3배 급증. 13면
- 한경닷컴(2007.8.3). 치맛바람 뺏치는 '바짓바람'
- 한국경제신문(2008.6.29). 이젠 '맹부삼천지교'...부서까지 바꾸며 '자녀교육 올인'아빠 늘어
- Barnett, R. C., & Baruch, G. K. (1986).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and children's sex role attitude. *Child Development*, 57, 1211-1223.
- Coontz, S. (1998). *The way we really are: Coming to terms with American's changing families*. N.Y.: Basic Books.
- Kindlon, D.(2006). 최정숙 역(2007). 새로운 여자의 탄생 **알과결**. 미래의 창.
- Lamb, M. E., Pleck, J. H., Charnov, E. L., & Levine, J. A. (1987). A biosocial perspective in paternal behavior and involvement. In J. B. Lancaster, J. Altman, A. S. Rossi, & L. R. Sherrod (Eds.), *Parenting across the lifespan: Biosocial dimensions*. 111-142. Hawthorne, NY: Aldine.
- Marsiglio, W. (1991). Parental engagement activities with min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973-986.
- Palkovitz, R. J. (2001). *Involved fathering and men's adult development: Provisional bala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arke, R. D.(1996). 김성봉 역(2005).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샘터.
- Stevenson, H. W., Lee, S. Y., & Stigler, J. W. (1986). Mathematics achievement of Chinese, Japanese, and American children. *Science*, 231, 693-699.
- Volling, B., & J. Belsky. (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61-474.

- 접수일 : 2009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9년 09월 07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10월 23일